

주일 예배 순서

- 사순절 제2주-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34:15-18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3장 다함께

교 독문(Responsive Reading) 7번 다함께

공 동 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펜데믹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해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일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와 연합이 일어나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 봉독(Scripture) 로마서 6:12-14 인도자

말씀 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은혜 아래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봉 헌(offering) 6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48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교회로 가져오시면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우소식
 - 이진국권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월요일(3월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말씀묵상> 로마서 6:12-14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 1.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 노릇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12-13절) 나의 몸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 3. 죄가 그리스도인을 주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4절) 나는 율법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죄를 이기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해결하신 문제가 '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 된 성도가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인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죄의 권세에 눌러 허덕이고 있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타락한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보거나 싸우려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더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을 죄의 삯인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이제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과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이제는 마음껏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선물 받았습시다. 이제는 그 선물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